

“근기있는 ‘새끼사자’ 들 방부 받아요”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스님이 근기 있는 ‘새끼사자’를 키우기 위해 도심으로 나왔다.

서울 세곡동 법수선원(주지 영주)은 6월 30일 조실 성수스님 초청 선방 보림도량 개원법회를 열고,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원법회에서 성수스님은 법문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보면 산과 들이 모두 내 것이 된다”며 하루 5분만 참선하면 오도독 오도독하는 불교공부 맛을 느낄 수 있다. 꼭 깨달겠다는 마음으로 사자처럼 처연하게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선방 보림도량은 주지 영주스님이 하루 8시간 재가 불자들과 함께 참선정진하며 지도한다. 재가선객들은 일정수준이 되면 매달 초하루 법수선원 보림도량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스님은 6월30일 법수선원 보림도량 개원법회에서 불자들에게 용맹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성수스님 서울불자 참선지도

세곡동 법수선원 보림도량 개원

성수 스님을 직접 친견하고, 탁마 받을 수 있다.

재가선객 40~50명 회원제로 운영되는 50평 규모의 보림도량은 근기 있는 불자들을 선별하여 방부를 받을 방침이다. 문의 02) 3411-1139.

법수선원 주지 영주스님은 “참선수행을 통해 나를 깊이 있게 참구해보자 하는 사람들과 방부를 받겠다”

며 “소수정예를 표방하는 선방개원은 ‘근기 있는 새끼 사자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은사스님의 원력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수선원은 2년 전까지 100여명의 재가불자들이 성수스님의 지도아래 참선 수행하던 재가선방이 운영됐었다.

이번에 개원한 재가선방 보림도량은 법수선원이 대대적인 불사를 통해 새롭게 문을 연 것이다.

한편 성수스님은 현재 경남 산청군의 폐교를 인수한 후 해동선원을 개원하고, 재가불자들의 참선지도에 전념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조계사 대웅전 해체보수 지연될 수도

2차 시공사 선정 경우

공사재개 4~5개월 후

본격적인 해체보수공사를 앞두고 있는 조계사 대웅전이 연속공사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4~5개월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8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조계사 대웅전 본격 해체보수공사를 앞두고, 2차분 시공사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사금액이 커지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자칫 감사에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조계사는 새로운 시공사의 선정을 위해서



◊해체보수공사가 진행중인 조계사대웅전 모습.

는 설계 1개월, 시공입찰 선정 1개월, 현장파악 2개월 등 총 4~5개월 뒤에나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만큼 수의계약을 통해 계속 공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시공사 재선정은 공사 후 하자보수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우기자

원흥사, 청주 산남동 일대 소재

충북민예총 김승환 회장 주장

‘원흥사는 청주시 산남동 일대에 소재했다’

충북민예총 김승환 회장은 1일 발표한 ‘원흥사의 발굴과 보전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임진왜란 때 소실된 원흥사는 설화로 존재할 뿐 아니라, 현재 충북대에 보관돼 있는 석탑과 원흥이 마을 주변의 활석, 주

추, 다듬은 돌 등 산재한 유물의 흔적으로 충분히 증명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금속활자 직지를 탄생시킨 홍덕사와 그보다 앞서 고려 목판본 금강경이 인쇄된 원흥사는 깊은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흥사지 보존에 대한 여론은 한국토지공사 청주시 산남 3지구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하면서 불거졌다. 충북지역 45개 시민단체는 충북도에 최근 택지개발 계획 인가의 전면 유보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 중이다.

김원우기자

청주불교방송 신임사장에 지원스님

파행방송과 공급유용, 감사거부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청주불교방송 사장 현중 스님이 최근 일고 있는 회사 내분에 책임을 지고 6월 10일 자진 사퇴했다.

청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위원장 지명 스님)는 6월 2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원 스님(사단·법주사 기획국장)을 6대 신임 사장으로 내정하고 본사에 정식 임명을 요청했다. 이로써 그동안 직원들의 사발부쟁이로까지 번졌던 청주불교방송의 내용은 일단락됐다.

지원 스님은 법주사 포교국장, 전주 송광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새만금사업 저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청주=이상우 청주지사장

전주 연화사 교도소 독경법회 개최

전주교도소에서 독경법회가 열렸다.

전주 연화사와 정음 일광사는 6월 26일 전주교도소 대강당에서 재소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경법회를 개최했다. 이어 열린 독경대회에서는 <법성계> <부모중경>을 독경한 현영호 한일수 불자가 1, 2위를 차지했다.

독경대회 후에는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이 달의 불자상 시상식이 거행됐다. 이 달의 불자상 시상식에서는 장재열씨 등 15명이 금일봉을 받았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우리결 우리신도

청년포교 앞장서는 ‘전천후 일꾼’

전북 정음 일광사 정인택 거사

불교의 불모지... ‘전북’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기 쉬운 말이다. 하지만 이제 전북 불교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탈피해 ‘젊고 활동적인’ 불교로 거듭나고 있다. 전북 정음의 일광사 역시 이러한 정음 불교계에 작지만 큰 변화를 몰고 왔다.

거사들의 활발한 참여와 1600여 세대에 이르는 신도들, 주지 승천 스님의 원력으로 지역의 교도소와 군부대, 복지단체를 찾다니며 펼치는 봉사활동 등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고정관념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광사 신도들이 지역 단체나 불우 이웃을 찾다니며 씩이나 보시금을 전달하고, 군부대와 교도소를 찾아가 교화활동을 하는 것이 처음부터 수월했던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주지 스님의 추진력과 신도들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정 거사가 승천 스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12년 전. 전북불교대학에서 ‘사제기간’으로 만나 20여년 동안 교도소와 군부대, 독거노인을 찾다니며 봉사활동을 펼쳐온 승천 스님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왔다. 정 거사 또한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전주교도소를 찾아 재소자들 교화에 나서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정 거사가 이렇듯 불교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은 대불려 커플인 부인 김유진(법명 대불심씨)의



◊대불려 커플인 부인 김유진(법명 대불심씨)은 정 거사가 이렇듯 불교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은 대불려 커플인 부인 김유진(법명 대불심씨)의

‘부처님 그리기’ 등 행사 통해 지역포교에 앞장 불교학생회 회장시절 노하우와 대불려 커플인 부인내조가 원동력

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일이었다.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회장을 맡고 있는 정인택(44, 법명 혜산) 거사 역시 일광사의 활동을 뒷바라지하는 숨은 일꾼이다. 일광사의 ‘열혈 신도’이자 지역 불교발전의 열쇠가 된 정 거사에게는 정음의 불교의 활성화와 젊은 불자들에게 대한 교육을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다. 때문에 ‘부처님 그리기 대회’ 같은 행사를 열어 어린이 불자를 육성하고 지부단위 회의와 모임을 통해 포교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올해 8번째로 열린 ‘부처님 그리기 대회’는 정음시내의 학생 500여



추천의 말 승천스님 일광사 주지

군포교와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정음 지역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일광사에는 젊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회장을

신행, 봉사활동 묵묵히 실천

맡고 있는 정인택 거사는 청년불자들의 포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서 봉사활동시 뒤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모습이 아릅답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신행생활을 하며 불교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 신도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정음=여수령기자

만우스님 파동명상수련으로 45일만에 영통(靈通)을 이룬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많은 스님, 법사님들이 파동명상을 통하여 경험하신 신묘하고 놀라운 경험담을 신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에서 포교원 <구룡사 052)298-9945, 017-521-9952>을 운영하시는 만우스님(영통수련반 2기생)은 지난 2002년 10월말 경, 저희 연구소와 인연을 맺고 파동명상수련을 하시던 45일째 되던 날 새벽, 스님의 인당형에서 평소와는 다른 감각(심한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날 이후 스님은 영통(靈通)이 열려 구룡사를 찾는 많은 신도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제도하는 힘과 능력이 생겼다. 만우스님은 평소애 방편으로

천문과 지리, 육입과 명리학 등에 관계된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 그 공부들은 스님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해 항상 답답해 하시다가 본 연구소의 영통수련반에 입문하시어 파동명상수련으로 영통(靈通)하게 되었다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현재 숙명통을 이룬 스님의 소문을 듣고 구룡사로 밀려드는 많은 신도들(하루에 4-50명)의 일상에 대한 친견 때문에 분주한 나날을 보낸다고 한다 또한 스님은 본 연구소와 인연을 맺은지 불과 6개월만에 신도수가 2000명으로 불어나 지금은 모처에 큰 불사를 일으키기 위한 준비를 다 마쳤다는 말씀을 근간에 전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영역(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우주영역의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 몸속에 있거나 장애를 주는 영가와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제주(祭主) 또는 신도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 ◆ 원격명상제령 :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한다.
- ◆ 파동명상수업의 :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명시식, 천도 및 제령
-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기법의 파동명상을 통해 靈通을 열 수 있게 한다.(숙명통..)
-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일시 : 매월 2째주, 4째주 (본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수련과정
 -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 ② 영통수련반 : 전문반 수련후 상담후 등록(수련비 300만원)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